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반구대 환상곡
수상내역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작가	장선희
소재	반구대 암각화, 귀신 고래, 국악 관현악곡 '반구대 환상곡'
기획의도	<p>본 작품은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반구대 환상곡'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1악장은 선사 공동체 모임의 새벽을, 2악장은 죽은 영혼이 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을, 3악장은 공동체의 간절한 기원을, 4악장은 굿을 마친 후의 흥겨움과 환희에 찬 모습을 표현한 국악 관현악곡이다. 반구대 환상곡 각 장에 맞추어 실제 곡 삽입이 가능한 스토리를 구상해보았다. 아름다운 영상과 고대인의 바람을 그린 '반구대 환상곡'이 어우러져, 시청각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p> <p>또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신화학적 해석에 따른 스토리텔링으로 호기심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문화유산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등장인물	<p>다하로(12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은 왕성하다. 하지만 맹인이라는 이유로 과잉보호하는 형 때문에 매사에 소극적이다.</p> <p>은시(20대 중반) 부족의 여주술사. 다하로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스승이자 유일한 친구.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진 인물.</p> <p>마로(17세) 다하로의 형. 고래잡이를 할 때마다 선두에 서서 작살을 던지는 뛰어난 사냥꾼. 몸이 약한 다하로를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 믿는다.</p>

## 1. 반구대 암각화 바위그림 앞 / 낮

새까만 어둠 속,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림을 그리듯 움직인다.

아이의 손이 지나간 곳에 하얀 선이 남고,

하얀 선이 곡선을 이루어 하나의 모양으로 완성된다.

검은 바탕 위 하얀 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진 거북이 모양.

은시(e)            다하로. 이게 거북이야.

거북이 옆, 또 다른 하얀 선이 곡선을 만들어가고.

짐승의 작은 머리, 곧게 뻗은 네 개의 다리를 지나 긴 몸통으로 이어지는 선.

머리 위, 하늘로 뻗어나가는 나무 가지처럼 구불구불한 사슴의 뿔이 그려지고.

마침내 아이의 손가락을 따라 하얀 선으로 완성된다.

은시(e)            수사슴은 크고 단단한 뿔을 가지고 있단다.

하얀 선으로 그려진 사슴의 뿔이 점차 바위 위에 새겨진 암각화로 바뀌면.

작은 손으로 바위에 패인 선을 더듬는 한 소년, 꼭 감은 두 눈.

직선과 곡선, 튀어나온 바위 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만져나가는 다하로(12세).

옆에서 다정하게 소년을 바라보는 여인 은시.

단순한 가죽옷만 입은 다하로와 달리 푸른 색, 녹색, 흰색, 붉은 색의 천을 꼬아 만든 머리띠  
에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쓴 주술사 복장이다.

다시, 사슴 그림 옆 고래잡이를 묘사해 놓은 그림이 클로즈업 되면,

배를 탄 사람들이 작살을 들고 고래를 사냥하는 그림이 새겨져있다.

다하로, 천천히 바위를 만져보다가 고래를 찾아 더듬더듬 손을 옮긴다.

소년의 손가락이 고래의 지느러미를 지나 갈라진 꼬리에 닿는다.

다하로            (천천히 그림을 매만지는) 이걸..뭐예요?

은시            그건 고래야...바다에 사는 고래.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고래 암각화, 화면을 가득 채운다.

화면 암전.

## 타이틀 ‘반구대 환상곡’

## 2. 먼 옛날, 기원전 4000년, 신석기 시대/ 반구대 암각화 주변 전경 / 낮

점점 화면 밝아지고, 다시 고래의 암각화로 이어진다.  
 바위에 그려진 암각화를 중심으로 주변 풍경으로 시야가 넓어지면.  
 수백 미터에 걸쳐 연립한 절벽, 70미터도 넘는 까마득한 높이다.  
 그 절벽의 아래쪽에 새겨져 있는 바위그림들.  
 절벽 근처로 태화강 대곡천변이 넓게 이어져 있고,  
 나무가 우거진 산의 동쪽 끝 마치 거북이 모양처럼 생긴 바위, 반구대가 보인다.  
 반구대에서 멀지 않은 강변 근처에 모여 있는 십여 채의 움막.  
 움막 앞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연기를 쫓아가면..

## 3. 절벽 앞, 바위그림 앞 / 어스름한 새벽

바위그림 앞을 어른거리는 하얀 연기와 활활 타오르는 불빛.  
 절벽 앞에 불을 피우고 모여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 만든 북과 나무 방망이를 들고 불 앞에 선 주술사, 은시.  
 사람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린다.

북소리(e)                      둥-둥-둥~

강변을 울리는 장엄한 북소리와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이어지고.  
 ‘반구대 환상곡’ 1악장 중, 새벽을 일깨우는 낮고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은시                      (바위 아래 무릎 꿇고) 우리에게 필요한 동물을 잡기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리를 다치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잡은 것을 잃지 않도록,  
                              악천후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치켜드는 은시.  
 연거푸 절을 올리는 사람들 사이에 멀뚱히 앉아있는 다하로.  
 다하로, 땅바닥에 손을 대보면 둥-둥-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다하로의 주변을 감싸는 북소리와 노랫소리, 점점 커져간다.

## 4. 움막 / 낮

작은 움막 안을 바쁘게 오가며 작살이며 무기들을 챙기는 다하로의 형, 마로(17세).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다하로, 입이 땃발로 튀어나왔다.

마로 (들뜬) 이번에도 형이 선두에서 작살을 날릴 거야.  
 고래한테 꽃을 첫 작살은 내 몫이라고!  
 두고 봐라. 형이 제일 큰 고래를 잡아 올 테니까.

다하로 마로 형..나도 따라가면 안 돼?

마로 (시무룩한 동생을 보고 아차 싶은) ..넌 형이 올 때까지 집을 지켜야지.

다하로 맨날 집에만 있는데 뭐. 할 일도 없어.

마로 할 일이 왜 없어? 토기도 빗고..

다하로 (말 자르는) 나도 형처럼 부족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마로 ....

다하로 나도 보고 싶어. 숲에 가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보고 싶고..  
 바다에 나가서 고래도 잡아보고 싶어.

마로 (다하로의 눈을 보는, 안타까운) 우리 다하로는 몸이 약해서 안 돼.  
 그래도 걱정 하지 마. 형이 항상 지켜 줄 테니까.

다하로 그치만..

밖에서 마로를 부르는 소리.

마로 이제 가 봐야겠다. 혼자 있을 수 있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다하로.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버린 마로, 썰렁한 움막 안에 홀로 남은 다하로.

## 5. 바위그림 앞 / 낮

바위그림 클로즈업, 찢3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는 은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주술사 은시를 향해 여러 마리의 고래들이 다가오는 그림.  
 선두에서 고래를 이끌고 오는 한 마리의 거북.  
 정성스런 손길로 돌에 거북을 새기는 은시, 제를 올릴 때처럼 경건한 모습이다.  
 돌로 만든 조각기로 바위를 쪼아 윤곽선을 만드는 은시.  
 그 옆에 널찍한 바위에 앉아 은시의 조각기를 만드는 다하로.  
 뭉툭한 돌을 작살처럼 날카롭게 갈아내는 다하로, 재미없는 듯 대충대충 돌을 간다.  
 딱..딱..은시가 돌 쪼는 소리, 끼익끼익..돌 부딪히는 마찰음이 다하로의 귓가에 울린다.  
 재깅재깅 시계처럼 번갈아 반복되는 두 개의 소리, 듣기 싫은 듯 얼굴을 찡그린다.

다하로 (돌 가는 손을 멈추고) 뭘 새기고 있어요?

은시 사냥의 풍요를 바라는 주술이란다.

다하로 (입술을 빠죽이다가) ...은시는 왜 그렇게 열심히 바위를 쪼는 거예요?

어차피 고래를 잡아오는 건 우리 형이잖아요.

은시 (미소 짓는) 바위그림이 태양 빛을 쬔면 그림들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단다. 우리는 바위에 동물의 형상을 새겨서 주술의 힘으로 그들의

영혼을 통제하는 거야. 동물의 영적 존재를 통제해서 수렵의 풍요와 안전 한 사냥 활동을 기원하는 거지.

(다하로 머리 쓰다듬는) 넌 지금 바다에 나간 사람들,

네 형을 돕고 있는 거야.

다하로 (심드렁한) 이깃 돌조각 한다고 뭐가 이뤄지는데요?

은시 말은 다 거짓말이야.

고래를 잡아오는 건 형이지, 여기서 백날을 기도해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돌만 붙잡고 있는 것도 지겨워요.

돌을 내팽개치고 비틀비틀 일어서는 다하로.

지팡이로 땅을 더듬거리며 걷는 다하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시.

## 6. 몽타주

-바다, 서너 척에 배에 나눠 탄 마로와 여러 명의 장정들. 일렁이는 해수면.

저 멀리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고래를 발견한 사람들, 힘껏 노를 젓는다.

- 한 무리의 고래 떼에 둘러싸인 배.

고래 가까이 배를 밀착시키는 사람들.

강한 파도에 작은 배가 위아래로 요동친다.

-작살을 쥐고 선두에 선 마로, 바다 속 고래의 움직임을 쫓는 날카로운 눈빛.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고래의 몸, 고래를 향해 몸을 날리는 마로.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마로의 작살.

## 7. 바닷가/ 낮

해안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허겁지겁 달려가는 은시.

이미 정박해 있는 여러 척의 배, 들뜬 얼굴로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는 마로와 남자들.

그 너머 서너 마리의 고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해안가.

고래를 본 은시, 충격과 경악에 일그러지는 얼굴.

마로 (은시에게 다가오는) 주술사님 덕분에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요.

은시 무슨 짓이야? 꼭 필요한 동물 이외는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고 했잖니.

마로                   한 마리나 세 마리나 뭐가 달라요? 많을수록 좋죠.  
                           어차피 다 사람들이 먹고 입을 건데..

은시                   (말 자르는) 그래, 우리가 먹고 입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거야.  
                           그만큼 그들의 생명에 빚지고 있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마로                   (발끈하는) 고래는 우리랑 달라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은시                   이 세상은..우리만이 사는 게 아니다.  
                           욕심이 과하면 자연의 균형도 망가지게 될 거다!  
                           당장 그만 뒤라.

마로                   싫어요. 어차피 주술사님도 내가 잡아온 고래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싫으면 주술사님은 쓰지 마세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고래를 나눠주면 되니까요.

은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마로.  
 마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 그 뒤를 하나 둘 쫓아가는 사람들.  
 해안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은시,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멀찍이 서서 말다툼을 듣고 있던 다하로, 은시에게 다가온다.

다하로               (쭈뼛거리며 다가와) ...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잡은 거잖아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은시                   서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다하로               하지만 고래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은시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왜?

다하로               우린 고래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고래보다 똑똑하고 더 강하니까요.

은시                   강해서? 강한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니?  
                           약하고 너와 다르다고 해서 마구 죽여도 괜찮은 거야?  
                           네가 앞을 못 본다하여 사람들이 너를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도  
                           옳은 일일까?

다하로               .....

은시                   .....고래도 마찬가지로란다.

점점 어두워지는 다하로의 얼굴.

8. 반구대 근처, 강가 / 낮

널찍한 바위 위에 대자로 누워있는 다하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하로가 누워있는 곳의 바위만 움푹 파여 있다.  
 공룡의 발자국 모양으로 깊게 파여 있는 구멍, 그 구멍 안에 누워있는 다하로.  
 옆드려 눕는 다하로, 바위 바닥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본다.  
 쿵..쿵..어디선가 소리가 들린다.  
 쿠..웅~육중한 무언가가 바위를 딛는 묵직한 소리.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바위가 흔들린다.  
 더욱 귀를 밀착하고 소리를 찾으려 애쓰는 다하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짐승의 울부짖음, 공룡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 9. 다하로의 상상 속

바위에 귀를 대고 누워있는 다하로, 두 눈을 천천히 뜬다.  
 암각화처럼 면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얗고 까만 음영만 있을 뿐 색이 없는 세상.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다하로,  
 어느 새 다하로의 몸도 하얀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으로 변했다.  
 그리고 다하로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공룡.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살을 발견하는 다하로.  
 아무 망설임 없이 작살을 들고 공룡을 향해 달려간다.  
 공룡의 몸에 작살을 날리는 다하로, 작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공룡.  
 다하로의 얼굴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하다.  
 천지를 울리는 긴 울부짖음 후, 완전히 쓰러지는 공룡.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는 처절한 울음소리에 다하로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내 쓰러진 공룡의 몸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다하로,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입만 오물댈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끝없이 퍼져나가는 피가 땅을 적시고, 강을 타고 내려가 바다까지 닿는다.  
 붉게 변한 바다를 보는 다하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리는 입술.

## 10. 움막 / 아침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다하로. 움막 안이다.  
 악몽을 꾸 듯 온 몸이 땀범벅이다.  
 이부자리를 손으로 더듬어보는 다하로, 이미 비어있는 옆자리.  
 그 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고..

## 11. 바닷가 / 아침

지팡이를 짚고 해안가로 다가오는 다하로.

배를 정비하던 마로, 다하로를 보고 한걸음에 달려온다.

마로                    왜 나왔어? 좀 더 자지 았구.

다하로                (불안한) 형...오늘도 바다에 가는 거야?

마로                    그럼, 요즘처럼 고래가 풍족하게 잡히는 때를 놓칠 순 없지.

다하로                하지만..은시가..

마로                    걱정하지 마. 은시는 그냥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야.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싸워온 건 형이야. 바다는 형이 더 잘 알아.

다하로                그래도, 이제 고래는 충분하게 잡았잖아?

대답 없이 다하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마로, 배를 향해 달려간다.

해안가에 텅그러니 서 있는 다하로.

점점 해안선 너머로 멀어지는 배.

배웅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텅 빈 해안가에 혼자 남아있는 다하로.

## 12. 움막 앞/ 낮

움막 앞에서 토기를 빚는 다하로.

완성된 토기하나를 집어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바닥에 있던 돌 하나를 집어 빗살무늬를 새기기 시작한다.

자신이 새긴 빗살무늬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다하로.

사람들(e)            (다급한) 돌아왔어요! 배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불길한 예감에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다하로, 걱정스러운 얼굴.

## 13. 바닷가 / 해질 무렵

어두운 하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먼 바다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해안에 정박한 배가 부서질 듯 요동친다.

여기저기 부서진 초라한 물결의 배,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리는 남자들.

다른 남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마로.



부상을 입은 듯 다리를 절뚝거린다.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에 의지해 마로에게 다가온 다하로.

다하로 (허공에 손을 뻗는)...형?

마로 (힘겹게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는) ...미안하다. 다하로.

다 내 잘못이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울먹이는 다하로.

더욱 심하게 폭풍 치는 바다.

#### 14. 마을 공터/ 밤

횃불을 두고 둥글게 모여 앉은 부족 사람들.

머리가 하얗게 센 족장, 한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연다.

족장 .....고래의 씨가 말라버린 지 한참이오.

이대로는 부족원들 모두가 살아갈 수 없소.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마로와 남자들.

족장, 구석에 앉아있는 은시를 보며.

족장 방법을 찾아야만 하오.

고래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할 수 없겠소?

입을 꼭 다문 은시, 활활 타오르는 불빛만 바라본다.

#### 15. 바위그림 앞 / 밤

새까만 어둠 속, 횃불을 들고 바위 가까이 다가오는 은시.

바위에 새겨진 그림 하나하나를 불에 비춰본다.

고래 그림에서 횃불이 멈추고, 한참동안 고래를 바라보는 은시.

지팡이 딛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면 은시 앞에 서 있는 다하로.

은시 (의외인 듯, 놀란) 다하로!

#### 16. 반구대 근처, 강가 / 밤

썸8, 공룡 발자국이 움푹 파여 있는 바위.

발자국 구멍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

다하로 (구멍을 더듬는) 이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은시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들었다.

다하로 한참 침묵을 지키다) ...울음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은시 (다하로를 보는) ...?

다하로 아주 슬픈 것 같았어요.

(울먹이는) 내가 작살을 던져서, 그래서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다하로를 꼭 끌어안아 주는 은시.

다하로 고래도 많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은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거야.

고래의 영혼을 달래준다면 다시 바다로 돌아올 거야.

다하로 어떻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방법으로요?

은시 (슬프게 미소 짓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 갈 수 있는 게 그들 덕분이란 건 잘 안단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해.

그러니..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해.

깊은 생각에 잠긴 다하로의 얼굴.

## 17. 바위그림 앞/ 낮

바위그림 앞에 선 다하로.

기도를 올리듯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인다.

다하로 (나지막이 읊조리듯) 도와주세요..

다하로, 손을 뻗어 암각화 하나하나 신중하게 만져본다.

그런데, 다하로의 손이 닿은 바위그림이 생명을 얻은 듯 꿈틀거린다.

그대로 본을 뜬 듯 바위 속에서 빠져나와 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흑백의 선으로만 그려졌던 사슴 그림, 숲 속을 뛰어다니듯 공중을 오간다.

곧이어 몸통, 콧등, 뿔 하나하나 색과 입체감이 더해지더니 실제 사슴처럼 커진다.

거북이, 사슴, 호랑이..갖가지 동물들이 본 모습대로 재현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눈은 분명 감겨있지만 눈앞의 광경이 보이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다하로.

갑자기, 다하로의 뺨에 스치는 차가운 물방울!  
 그 물방울과 함께 거대한 귀신고래가 다하로의 곁을 스쳐지나간다.  
 따개비가 잔뜩 붙어있는 거므스름한 몸, 얼핏 회색 얼룩반점처럼 보인다.  
 바다 속을 헤엄치듯 유유히 다하로의 곁을 맴도는 귀신고래.  
 다하로, 고래를 향해 손을 내민다.  
 손에 느껴지는 차가운 바닷물, 매끄러운 고래의 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고래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세상 소리가 아닌 듯, 신비로운 고래의 노래가 길게 울려 퍼진다.  
 그 소리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다하로.

#### 18. 은시의 움막 / 낮

다급하게 움막 안으로 들어오는 다하로, 가쁜 숨을 몰아쉰다.

다하로           (헉헉 숨을 고르다가)....들었어요!  
 은시            (깜짝 놀라, 의아한) ..?  
 다하로           고래의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줘야 해요.

갑작스런 다하로의 행동에 놀란 은시, 이내 침착함을 되찾는다.

은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들의 영혼을 보내 주자.  
                   하지만 고래의 영혼은 이미 힘을 잃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바다로 보내줄 수 있을까?

고민에 잠긴 다하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듯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다하로           (머릿속에 생각이 스친 듯) 배! 배가 있잖아요.  
                   마로 형은 바다에 나갈 때 배를 타잖아요.  
                   고래의 영혼도 배에 태워서 보내주면 어떨까요?  
                   혼자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고래가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줘요.  
 은시            그럼, 영혼을 태울 배를 만들어야겠구나.  
                   하루 빨리 바다로 돌아가고 싶을 테니 서둘러야겠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렴.

이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는 다하로.

## 19. 몽타주

- 숲, 힘을 합쳐 커다란 나무를 운반하는 마을 사람들.
  - 해안가, 나무 속을 파내고 열심히 배를 만드는 마로.
  - 완성된 배, 다하로의 손을 이끌어 배를 만지게 해주는 마로.
- 손을 더듬어 배를 만져보는 다하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 20. 암각화 바위 앞/ 낮

반구대 환상곡 3악장, 공동체의 간절한 기원을 표현하는 곡이 울려 퍼진다.  
비장한 얼굴로 바위 앞에 선 다하로와 은시.  
바위에 고래 무리를 새겨 넣는 은시.  
한 무리의 고래 그림 꼭대기에 새겨지는 ‘배’ 한 척.  
은시 옆에서 배를 조각하는 다하로.

은시(e)            죽은 고래의 영혼을 신의 세상으로 보내주는 배란다.  
                      우리가 잡아먹은 영혼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거야.

다하로, 신중하게 돌을 쪼아낸다.  
작은 손이 새빨갳게 부르트는 것도 잊은 채 열중하는 다하로.  
오로지 손의 감각에만 의지해 그림을 새긴다.  
잠시 후, 바위그림을 가리던 그들이 서서히 벗겨지고 환한 햇빛이 비친다.  
햇빛을 받은 고래와 배 그림, 생명을 얻은 듯 영롱하게 반짝인다.

## 21. 반구대 암각화 전경

하늘에서 내려다 본 반구대.  
우거진 수풀과 깎아져 내리는 절벽, 그 아래로 흐르는 강물.  
바위그림만을 비추는 강렬한 햇빛.  
환하게 빛나는 바위그림에서 햇불이 어른거리는 밤으로 화면 바뀐다.

## 22. 바위그림 앞 / 밤

둥-둥-둥 북소리가 울린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아올린 햇불 위로 달이 솟아오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치는 은시.

은시                   이 뜨거운 기도로 물길을 열어 주소서.  
                          파도가 당신의 뜻으로 가는 곳마다 채워주소서.  
                          고래가 당신의 힘으로 가는 곳마다 찾아주소서.  
                          바다 밤길은 햇불로 타시고 낮은 태양으로 지켜주소서.  
                          암벽 속 신의 발길이 울던 바다를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교차화면) 저 멀리 보이는 바닷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은시의 지시를 기다리는 마로.

기도를 마친 은시가 햇불을 흔들고.  
(교차화면) 배를 바다로 보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힘껏 배를 밀어 보내는 다하로.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마는데..

## 23. 다하로의 상상.

반구대 환상곡 2악장, 죽은 영혼이 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을 표현한 관현악곡.  
어둡던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  
천천히 눈을 뜨는 다하로 앞에 찰랑이는 파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발을 간질이는 푸른 바닷물과 다하로를 보고 웃는 마로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해안선 너머에서 물을 뿜어내는 귀신고래의 형체가 점점 선명하게 보인다.  
힘차게 솟아올라 점프하는 귀신고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다하로.

어느 새 깊은 바다 속에 들어와 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다하로.  
자신이 만지고 느꼈던 귀신고래의 몸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바라본다.  
어둡고 푸른 바다 속을 고래와 함께 자유로이 유영하는 다하로.  
이윽고 다하로의 곁을 떠나 어둠 속으로 하나 둘 사라지는 고래들.  
먼 바다로 돌아가는 고래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다하로, 고래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는 평온한 얼굴.

## 24. 바닷가 / 아침

다시 배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닷가.  
여느 때와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다하로, 마로 곁으로 다가간다.

다하로            다시 바다로 가는 거야?  
마로            응.  
다하로            .....형, 나 고래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

다하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마로, 말없이 배에 올라탄다.  
바다로 나가는 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소리에 시끄러운 바닷가.  
돌아서는 다하로, 그 뒤로 선명하게 들리는 마로의 목소리.

마로(e)            고맙다, 다하로!

형의 목소리에 미소 짓는 다하로,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앞으로 걸어간다.

## 25. 바위 앞 / 낮

바위에 그림을 새기는 다하로.  
다하로 곁으로 다가오는 은시.

은시            뭘 새기는 거니?

파도치는 바다, 사람들이 탄 배, 배에 탄 마로의 모습을 새기고 있는 다하로.

다하로            형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힘을 더해 주고 싶어요.  
                  내가 힘겹게 새기는 이 그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시            (다하로가 대견한 듯 바라보는) 다하로, 너 그거 아니?  
                  바위에 그림을 새기는 건 말이야,  
                  기원과 염원의 조각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란단.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앞으로 어찌 살아갈 지 가르쳐주기 위한거야.  
                  ...난 너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다하로            (고개 들어 은시의 손을 잡는) 고마워요.  
                  은시 덕분에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었어요.

## 26. 바닷가/ 낮

바닷가에 앉아있는 다하로, 굳어버린 돌상처럼 미동조차 없다.

다하로의 귀를 간질이는 파도소리만 한참 반복되는 가운데.  
먼 바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끼익..배가 움직이는 소리, 점차 선명해진다.  
물살을 헤치고 노 젓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형의 목소리까지.

마로(e)            다하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다하로,  
지팡이마저 내동댕이치고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

## 27. 반구대 암각화 앞 / 밤

반구대 환상곡 4장, 흥겨움과 환희로 가득 찬 축제의 음악이 주변을 가득 채운다.  
바위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부족 사람들.  
불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마로.  
횃불을 돌며 춤추는 다하로와 은시, 서로 꼭 잡은 두 손.

## 28. 에필로그

공룡 발자국 위에 앉아 있는 다하로, 명상하는 것처럼 평온하게 감은 두 눈.  
주변의 소리들이 점차 다하로의 귓가를 울린다.  
바위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듯 하나하나 집중하는 다하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드는 가벼운 바람 소리.  
강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 깊은 산 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의 소리.  
고래의 노래를 들으며 따뜻하게 웃음 짓는 다하로.

다하로를 내려다보는 시선,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간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 가까이 다가가는 시선.  
고래가 새겨진 암각화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에서 화면 점점 멀어지고.  
높은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반구대 전경을 비추면서..

-The End-